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相奉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 交換 ⑵8131~9
本社直通 ⑵8577

每週火曜日發行

各 씨클 再登錄 實施 26~31日

新規登錄도 同期間中에 性格類似 써클 統合권장

76년도 各써클의 再登錄이 오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실시된다. 學生課에서는 現在 活動中인 기존 써클을 물론, 新規登錄을 원하는 써클도 이 기간 중에 등록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른 登錄申請書는 현재 學生課에서 배부중인데 同기간중에 各 써클은 新入部員의 입회등록과 任員改選을 완료하고 學生課에 등록해야 한다.

써클 再登錄期間中에 등록을 하지 않는 써클은자진해산으로 간주, 써클 활동을 不許하기로 했다. 써클의 新規登錄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써클活動目的에 부합되는 건전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 인가를 해주지만 이 경우, 써클이 기존써클과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통폐합을 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에서는 新規 써클의 기존써클과 성격이 유사한 써클의 등록을 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써클 재등록일정의 발표에 따라 各 써클은新入部員勧誘과 임원개선을위한 임시총회 개최등으로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로 1·2학년을 대상으로 新入部員을 모집하고 있는 各 써클은 벽보, 팜플렛 배부, 지난 1년간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모집전은 별다른 것이 없으며 모집기간은 대부분이 달 말까지로 잡고 있다.

신학기들어 各 써클의任員改選과 활동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T·P會長=이윤호(경행3)=지난 12일 同會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空席中이던 부회장에 현희경(家敎·3)양 과 총무에 이성환(경행·2)군을 각각 선출했다.

▲ELF회장=남기황·敎敎3)=지난 9일 同會室에서 臨時總會를 개최하고 군과 부회장에 정화영(敎敎·3)양, 총무에 장덕구(社敎·3)군을 각각 선출했다.

▲東大合唱團회장=白尙勳·農經2)=17일 합창단실에서 임시총회를개최하고 신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白尙勳(農經·2)군, 부회장에는 崔義植(法·2)군, 總務에는 위남희(農生·3)양을 각각 선출, 또한 同 정이다.

▲佛敎學生會회장=韓興宇·經營3)=오는 26일 오후 5시 大學講院(도서관건물)에서 臨敎師고수를연사로 法會를 개최한다. 이번 法會는 신입생에게 불교사상을 고취하기 위한것으로 신입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KCC(회장=임동원·貿易2)=지난 9일 12차 정기총회를 열고 會長에 임동원(貿易·2)군, 부회장에 박광규(經濟·2)군, 총무에 민광덕(貿易·2)군을 선출했다.

◇간담회광경

缺席 1/3, 試驗資格 잃어 福祉施設 改善등 論議

學生, 行政實務者 懇談會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학생복지시설개선, 學事業務등 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精神的 쇄신이 요구된다고 의견이모아진 이 자리에서 敎務課 朴秀根주임은 새로바뀐 수강신청제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학점취득과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朴主任은 금학기부터 실시되는 수강신청 제도등의 敎務行政을 휴강제도와 함께 학교당국에서 많은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학생과 大學行政各部處의 바람직한 관계확립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가 지난16일 오후3시 本館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수강신청제도, 교내미화등이 광범위하게거론된 이자리에는 학생측에서 蔣東洛師團長(政外·4)등 8명이, 대학행정실무자측에서는 李昌熙총무과장등 9명이 참석했다.

「공부하는 대학」, 「공부

학생과 大學行政各部處의 실무자 간담회가 지난16일 오후3시 本館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수강신청제도, 교내미화등이 광범위하게거론된 이자리에는 학생측에서 蔣東洛師團長(政外·4)등 8명이, 대학행정실무자측에서는 李昌熙총무과장등 9명이 참석했다.

第7회 東國人 登山大會

東國 山岳會 主催로 參加申請 4月12日~16日

第七回 東國人登山大會가 오는 4月18日(日) 정릉에서 出發하여 보문동→문창지→대남문→문수봉→차마위→세검정國民學校코스에서 열려, 東國人의 親睦과 健脚을 겨루게 된다.

東國山岳會(會長=李內曄敎養學部長)에서는 18日 학교당국의 후원을 얻어 登山大會에 따르는 제반계획을 세워 李載昌副會長의 8名을 준비위원으로 하고 오는 28日 예비답사를 떠남 것을 결정했다.

해마다 4·19학생의거일을 기념하여 개최해온 東國登山大會의 목적은 「건전한 山岳活動을 통하여 자주와 인내, 상호친목과 협동정신을 진려, 경험한 산악인의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건강한 東國人, 슬기로운 東國人, 높푸른 大望에 도전하는 東國人의 기개를 더 높이고자 는데 두고있다.

참가팀 편성은 ①學科代表部(총장기행낱, 科別팀수제한 없음) ②써클(써클·학우회·상상조호국단간부) ③교수·강사및직원부 ④同門部(대학원생 포함) ⑤京立高校部(理事長旗쟁탈)등이며 참가팀의 등록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 학생회관앞 特設캠프이다.

각팀은 리더 1名을포함 4名으로 구성되며 책점은 보편정위주로 하여 登山의 일반적 상식과 장비 협동 등 특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施賞은 최우수상을 비롯, 모두 30개부분에 걸쳐 있을 예정이다.

本會에서는 또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의하나로 전국 중고등학교 등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중이다. 한편 東國人 登山大會의 자체한것은 A건물 3층 상상부실이나 교양학부에 문의하면된다.

25日, 新入生 歡迎會

長技자랑·公開放送등 多彩

76年度 新入生 歡迎會가 오후 1時부터 중강당에서 열린다.

주최로 1, 2, 3部로 나뉘어 장기자랑, 공개방송등 다채롭게 펼쳐지는데 이에 따라 서 마을 율림는 환영회는 기자랑, 공개방송등 다채롭게 펼쳐지는데 이에 따라 특강, 사대 실포지음.

▲◇通信委산하各部事業計劃 ▲◇總務部=公報지 발간, 農學徒의 발 ▲◇文敎部=체육대회 ▲◇學術論文 發表會, 체육대회 ▲◇學術討論會, 食工, 工經, 高工, 工敎院) ▲◇工工, 工敎院) ▲◇學 ▲◇第4대대(師範大)=體育大會, 사원전 발간, 시화전 ▲◇第3대대(法政大)=체육대회, 학술토론대회 ▲◇第4대대(經商大)=經商大祭가이드 발간, 신입생환영회, 체육대회, 모의주주총회및 ▲ROTC(육수대대)=체육대회, 연극제, 선배장교를 위한 학교 위문 ▲◇第2대대 제1대대(農林大)=등록등록일발간, 農學徒의 발 ▲◇第2대대(工大·A·전자전기, 토목, 건축과)=전자전기, 體育大會, 技工대대비 담회, 體育大會, 技工대대비 ▲◇第3대대(工大·B·化工, 食工, 工經, 高工, 工敎院) ▲◇工工, 工敎院) ▲◇學 ▲◇第4대대(師範大)=體育大會, 사원전 발간, 시화전

연평기 쓸까

社說

勉學雰圍氣의 生活化

지난 13일전체교수회의 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李瑄根총장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교수·학생이 合心해서 勉學風土造成에 적극적으로 힘쓰라고 당부하였다。李총장은 특히 금년은 국가적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말하고 維新體制의 안정을 위해 대학인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지난 14일 外務部發明에 의하면 최근 北傀는 세계각국에 書簡을보내어 韓半島에 새로운 戰爭危機가 조성되고 있다는등 조직적인 허위선전을 벌이고 있으며、이는 韓美兩國의 이간을 劃策하는동시에 韓半島情勢에 정통하지 못한 일부非同盟國家들을 誤導하려는 것이며、韓國의 安保體制를 弱化시키며 北傀의 對南戰爭挑發음모를 은폐하려는 연막전술을 꾀고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것은 우리나라의 維新體制를 外部的으로 위협하는 것이 어떤한 형식의 논문이든지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論文이라면 序論 本論 結論의 순서로 된장을 작성해야 한다는것은 大學生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학술논문을 작성하는데는 여러가지 規則과 方法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지식과 교양을 갖추지 않는 限 충분히 체계있는 논문을 쓸수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어진 人文社學分野의 논문작성법을 제한된 범위안에서 주요한 要點들만을간추려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元來 논문이란 말은 라틴어의 Thesis라는 명사에 유래하는 것으로서 어떤 테마에 대하여 學術的으로 연구하여 그것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문장체제를 의미한다。學問의 분류는 크게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각 분야에도 수많은 專門分野들이 다원적으로 分科되어있는만큼 어느하나의 분야라 하더라도 그것의論文作成法을 一義的으로 설명한다 立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한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學問一般에서 볼때 모든 陳述命題는 一定한 論理形式을 갖고있는반면 우리는 그形式과 規則을 발견함으로써 하나의 논문체제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먼저 論文體制의 요령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수있다。

첫째、테마(主題)의 選定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려면 먼저 연구해야 할 테마 즉 연구문제를 선정하는 일이다。물론硏究者는 테마를 설정함에 있어서 目的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자기가 충분히 연구하고자 하는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세밀히 점검한 연후에 테마를 선정해야 한다。하나의 주어진 테마에 대한 체계적인 論文作成의 요령여부는 연구자의 資質과 能力如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둘째、形式과 體制 주어진 테마에 대하여 論文을 작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형식과 연구방법 내지 論文의體制를 알아야 한다。主題의 관계있는 많은 저서와 논문들、그리고 參考資料들을 많이 읽고 테마에 대한 연구내용 즉 목차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카드를 작성한 후에 연구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의 結論體를 原稿紙에 옮겨써야 한다。

目次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序論 本論 結論의 순으로 정해야 하나 本論 結論의 순으로 정해야 명해줄 수 있는 세부사항으로분류하여 章과 節의 配列을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그리고 문장성에 있어서 引用한 참고문헌이나 자료및 기타 硏究報告에 사용된 用具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脚註를 달수 있다。

그러나 序論과 結論에서는 脚註를 달수 없다。論文이 학위논문이라면 즉 學士(B·A) 學位、碩士(M·A) 學位、博士(Ph·D) 學位등의 학위취득을 위한논문작성에 있어서 引用한 참고문헌이나 자료및 기타 硏究報告에 사용된 用具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脚註를 달수 있다。

研究

論文통과되어야 卒業인정

——學則改正

작년 6월 文敎部의 확정된 學則을 大學에 시달, 卒業論文制가 금년부터 實施됨에 따라 校長이 이를 개정하고 學生들의 卒業論文作成指導에 힘을 기울이도록 개정했다. 120조2項에 의거 卒業論文 시행에 따른 學則을 개정한 이수학점은 第12章53條 (요람참조) 과정인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되던것을 로서 全課程을 이수하고 學位論文이 통과되는 자에 한하여 學長의 수료증만을 주어 졸업을 인정하고 또한 2학기로 改正되었다. 學位論文이 아닌 한 주요 者는 卒業자로 하고있다. 總長이 卒業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종전의 所定의 비교 반교 논문으로 교정적인 학생들은 보이고있다. 나는 "본 大學 4年의 學究生活成果가 충분히 수여할 수 있다는것이다." 論文을 제출케 하는등의 본교 敎務課는 5월말까지 卒業論文作成계획서를 제출케 하는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쉽지 않았던 학생들로 있다. 論文을 接해보지 않았던 이에 人特 문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은 작성요령도 문제다.

「思無邪」의 教訓

金文洙 <現代文學賞受賞·同門小說家>

나의 文學修業記

<中>

金文洙 現代文學新人賞(소설부문에서 수상한 그는 『좀더부지런해지라는채찍질로 상을 준것을 감사한다』며 겸손하게 웃는다. 서민들의 애환을 주로다룬 創作集 「聖痕」은 그의 61년朝鮮日報新春文藝당선작 「異端復興」 外에 20편의 단편이 실려있다. 61년문단에 데뷰한 그는 「聖痕」이외에도 「蒸猫·迷路學習」등 창작집이 있다. 金同門을 앞으로 文藝物로 장편을 다루어보고 싶다며 지금껏의 게으름을 펼쳐버려야 겠단다.

그는 이번 賞을받기까지 59년도의 自由新聞 新春文藝 首席入選, (作品: 외로운사람), 67년 忠北文學賞 (作品: 半响麗風記) 등을 수상했으며 校國文科를 卒業하고 新聞, 雜誌記者 出版社編輯長을 역임, 현재는 正韓출판사 주간이다.

▲1939년忠北淸州出生, ▲61년文壇데뷰(朝鮮日報新春文藝당선), ▲62년 本校 國文科卒 ▲現在正韓出版社주간.

고등학교 입학했던 때, 힘이 센 놈에게 힘이없다는 그 한가지 이유때문에 억울하게 얻어 터진 일이 있었, 나는 그 이튿날로 권투장갑을 끼는 만용을 부렸다. 그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 반년동안을 그 체육관에서 맹 연습을 했다. 그리고 링에 올라가서 컴을 따내야하는 순서가 왔다. 시합을 며칠앞둔 그날, 대전표(對戰表)를 봤더니 나는 베비급(級) 이였다. 내가 베비급이 된것은 물론 체중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했던 때, 힘이 없다는 그 한가지 이유때문에 억울하게 얻어 터진 일이 있었, 나는 그 이튿날로 권투장갑을 끼는 만용을 부렸다. 그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에서 발광하며 몸부림치던 심정들이 원점으로 용접된 긴장 속에서 입학을 맞았다. 어쩌면 영원의 안식일지도모를 백묵먼지의 세하얀 그 팀자가 이다지도 고독할까?

나는 왔다. 한순간의결심이 이렇듯 어겨짐 만들었다. 패부 저 깊은 곳에서 생이 베비급이라니 그건 매우 창피한노릇이였다. 더구나 나와 싸울 상대는 국민학교 6학년 생이였다. 링위에서 그 꼭 민학생을 한주먹에 때려 눕힌다해도 조금도 영광스러울 것이 없었다. 나 이 하나 더 늘기 때문에 상대방 권투선수들이 나를 몰까지 링위에서 제려고 했던것이다. 그 원인이 되었다. 그후, 나는 미술부원이 되어 그림을 그리려 들 아다녔다. 화가가 되겠다는 꿈이 마냥 부풀어 있었다. 그 무렵 교지(校誌)에 투고한 콩트속 한 젊이 상급생인 윤혁도 빨리 문단에 등단해 야겠다는 그런조급증이 일었다. 대학 1학년때지는 국민학교 6학년 생 울 타내야만 학교에 입 어 이어질 때까지 술한 색벽을 지켜야 했다. 전등자위로 뽄한 먼지가 인다. 때마침 한줄기 광선이 닿자 온갖 물상이 요동한다. 겨우내 쌓였던 우울, 침잠, 허무가 일시에 스러지고, 시간이 흘러 나는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요리조리 피해다녔다. 그리고 그것이 권투를 계속하지 않게된 원인이 되었다.

그후, 나는 미술부원이 되어 그림을 그리려 들아다녔다. 화가가 되겠다는 꿈이 마냥 부풀어 있었다. 그 무렵 교지(校誌)에 투고한 콩트속 한 젊이 상급생인 윤혁 울을 없어진 신동아지만 문학과 안의 기운차가 3년나 사람에 대한 좋은첫인상이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나 요즈음 내 나를 칠해하며 만들었다. 우스운 얘기지만새 구들이 그리워지는 것이였다. 갑자기 이러한천체 된 生命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自覺이 들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이 나에게해 즐겼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생활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개장후, 과연 나의 生活은 변하기시작하였다. 써클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활발히 교제를 해서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고 시야를 넓혔다. 또한 교양학부에서 신입생들을위해 마련한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였다. 비록철학개론, 문학개론등 概論자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주 깊은 학문을배우는 것같아 열심히 강의시간에 임했다. 고등학교때는 마음껏 읽지 못했던 책들도 읽을수 있다는 자유는 나의 생활을 더욱 바쁘게 만들었다. 매일 학교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지만 불안하고 불쾌하기도 했었지만 활발하고 명랑한 「프레쉬·맨」이 되려고 나는 힘껏노력했다. 어쩌면 교양학부 1년을 헛되이 보내지만은 않았었다는 자부심이 솟인 신입생들로 아주신선감에 넘치고 있다. 이제는 1년전을 회상하는 선배로서 신입생들에게주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일에든지 한가지 일에 미쳐보세요. 그것은 공부라도 좋고, 예술이라도 좋고, 써클활동이나 취미활동도 좋고 또 연애라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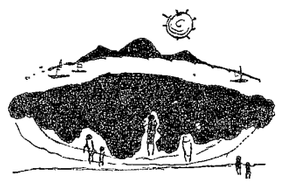
<師範大·國敎科>

「邪」없는 姿勢로 小說創作

高校時… 권투·美術에 專念

作品은 讀者를 感動시켜야

다시 원점에서



玉潤權

人學리교明約

敎養學部를 마치고 따스한 校庭

張玲美

첫인상.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좋은첫인상이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나 요즈음 내 나를 칠해하며 만들었다. 우스운 얘기지만새 구들이 그리워지는 것이였다. 갑자기 이러한천체 된 生命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自覺이 들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불을 기다리는 女心을 누구에게선가 알아차리는 낌새가 있었다. 희뜻희뜻한 대지엔 또다시 봄은 시작된다. 내 삶도 이제부터 봄이다.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동심원에는 머지 않아 기다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씨뿌리는 농부의 말으로 봄을 맞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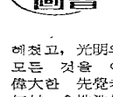
만만찮을 것만 같은 진리의 석탄에 생명을 불 어 봄을 고독한 작업이 또다시 시작되는것이다. 조심스레 삽질을할때 장롱위로 발을 얹는다. 마치 그 언젠가의 그날에 했었던 것처럼 확각하며… 모든 것은 억척스레대면하면, 거기서 무슨한진실에 엄매여야 할 것이다.

자아완성 결점의 스스럼없는 폭속에 또 한번 뛰어들고픈 것이다.

<師範大國敎科>

仁村 金性洙傳

<仁村紀念會·802P 非賣品>



新着圖書

皆韓末에서 6·25戰後까지 우리 近代史上 가장 암담하던 65年의 세월을 우리 民族과 함께 있었고 함께 가시 길을 헤쳤고, 光明의 터전을 닦았고 모든 것을 이 겨레에 바치신 偉大한 先覺者의 足跡을 엮어 仁村 金性洙先生이 세상을 떠난지 21년만에 仁村紀念會에서 그 傳記를 펴냈다.

先生의 一生을 通觀하고 누구나 옷깃을 바로 하는 것은 65년의 生涯, 한결음 한걸음이 모두 이겨레 이 民族을 위한 일이요, 私를 위한 것은 前에도 後에도하나 없었던 것이다. 진실로 先生은 이 겨레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갔다. 우리 近代史의 巨絳이요 이 民族의 永遠한 스승의 발자취를 담은 이 한권의 책은 讀者에게 많은감명을 주리라고 믿는다.

◇平和의 虛像

<로버트 틈슨著·金聖鎭譯·光明出版社·223P·非賣品>

著者는 이책의 머리말인 『韓國國民에게 보내는 글』 가운데서 「1969년에서 1975년 사이인 도처이나의 悪劇的 事件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쓰고있다.

우리는 北傀軍隊가 20여년전 釜山까지 육박했을 당시 韓國人들은 共産主義가어떤것인지를 체험했다. <中央圖書館 提供>

男女 修習記者 募集

大學言論暢達에 先驅的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는 아래 要領으로 참신한男女修習記者를 모집합니다. 將次 言論界로 進出하고자하는 뜻이있는學生들의 많은 應試를 바랍니다.

①募集人員=약간명 (寫眞·컷 記者 포함)

②應募資格=本校1學年 男女在學生

③제출서류=본사소정양식 1통 (배부중) 명함판 사진 1매

④원서접수=76년 3月15日 ~ 3月25日

⑤시험일자=76年 3月26日

⑥시험과목=國語·英語·常識·作文·記事作成·面接

⑦제 출 처=본사 총무부

1976年3月日

東大新聞社

社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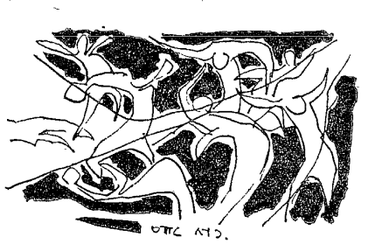
마감 25日로 迫頭!

눈두렁에 잠든 개구리

박진관

파도소리 밀려 오는 밤인가
들에는 겨울새 날아와 앨고 있어
산문밖에 달이 배를 띄운다.

물결소리 바다에 어름은 오고
오염의 산등을 넘어서 세월은 가고 있다
그날을 지키는 날은 푸른 꽃을 꺾는다.



그리움에 잠든 달은 춤을 추는가
내 맘에 흘러오는 노래소리여
대지는 언제나 꽃을 피운다.

시간의 노여움을 지킬 때면
방인의 입술에 꿈이 밀린다
오만된 밤에도 별은 노래하여라.

<僧伽學科·詩人>

—박진관스님은 「詩文學」誌 (76년 1월호)에 「生과死」등의 作品으로 추천을 완료했음.

다시 원점에서

玉潤權

빵집 마누라

극단 「座場」(대표=李炳燕)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 기념 빠플레(첫번째로 출연하는 「빵집마누라」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빵집마누라」는 프랑스 그 대작가 「빠뇰」의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그 지방의 특색이 있다.

「빵집마누라」는 프랑스 그 대작가 「빠뇰」의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그 지방의 특색이 있다.

演劇

南프랑스人 氣質표출 人間性회복노린 코메디物

「빵집마누라」는 빵집의 젊은부인이 젊음을놓치고 도망쳐버리자 빵집주인이 갑자기 늙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내용을 「빵집 마누라」라